



광주경총, 회원사 인사노무관리자 협의회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1일 김대중컨벤션센터 텔리하우스에서 회원사 임원과 인사·노무 부서장 등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3차 인사노무관리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협의회에서는 광주시교육청 '빛고을혁신지구사업'을 비롯한 '노동법 위반 사례', '사업장 근로개선 방향', '고용부 기업 지원 사업' 등을 안내하고 회원사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강연자로 나선 입학근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장은 "상반기 사업장 근로감독 사례로 임금 및 수당 미지급, 취업규칙 미작성, 근참법(근로참여자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사항이 있었다"면서 "기업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경총 관계자는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 광산경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광주 광산경찰은 지난 21일 광산구 신가동 소재 큰별태권도를 방문해 초등학교·학원 관계자 25명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이번 교통안전교육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안전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을 배우고, 모형 횡단보도를 설치해 어린이들이 횡단 시 손을 들고 천천히 주위를 살피며 건너는 실습 위주 교육으로 진행했다.

또 학원 운영자와 통학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관련 주의사항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의무와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부과에 대한 교육도 병행했다.

문성필 광주광산경찰서 교통과장은 "교통안전 교육·홍보 활동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zero)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철 기자



광주 북부경찰, 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

광주 북부경찰은 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 북구 등 유관기관과 합동해 추석명절 대비 말바우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계도·단속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북부경찰과 북구 등 유관기관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전통시장 일대 교통혼잡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장날에 맞춰 월 4회 합동단속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이날은 불법 주정차 단속과 함께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 및 이륜차(킥보드) 안전운행 법규준수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북부경찰 교통과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차량들로 많은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불법 주정차·무단횡단 금지 등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광주순환도로, 광주비엔날레 500만원 후원

광주순환도로투자(주), 광주순환(주) (대표이사 이영훈)는 지난 21일 (재)광주비엔날레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성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순환도로는 전광판 15개소에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홍보 문구를 표출하고, 소태·송암 들게이트와 주요 IC 등에 현수막 및 포스터를 비치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영훈 대표이사는 "창설 30주년에 열리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가 더욱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행사 홍보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며 "광주비엔날레를 거점으로 광주가 명실상부한 국제미술도시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순환도로(소태·송암)는 MKIF가 투자한 회사로 민자도로 운영평가에서 2년연속 최우수를 취득하고, 세계적 ESG 평가기관인 GRESB로부터 '3Star'를 획득한 바 있다. 윤준명 기자



광주은행-동구, 민방위 대피 훈련·안보강연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22일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의 날'을 맞아 본점에서 광주 동구와 합동 민방위 대피 훈련 및 안보강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훈련은 공습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으로, 신동하 동구 부구청장과 임양진 광주은행 부행장의 유도에 따라 임직원들을 질서정연하게 민방위 대피시설로 이동시켰다. 훈련이 종료된 후 운정환 청암대 교수를 초빙하여 '한반도의 주변 정세와 통일환경'이라는 주제로 안보강연을 실시해 을지연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국가 안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켰다.

광주은행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국가차원에서 실시하는 을지연습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며, 전·평시 위기 대처능력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광주은행 임직원과 광주시민들이 함께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방독면 사용법 등 고객과 은행의 안전확보를 위한 체험 훈련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최권범 기자



광주·전남혈액원, 헌혈자 동참 제빵 봉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원장 김동수)은 지난 21일 북구 임동에 소재한 적십자 광주봉사관에서 헌혈자와 함께하는 제빵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

이날 봉사활동에선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의 광주·전남지역 헌혈자 중 추첨에 당첨된 헌혈자와 가족 등이 초청돼 제빵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 참여 학생은 "제빵 봉사활동으로 재미도 느끼고 보람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분을 느껴봤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동수 원장은 "우리 지역사회에 생명과 사랑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헌혈에 힘써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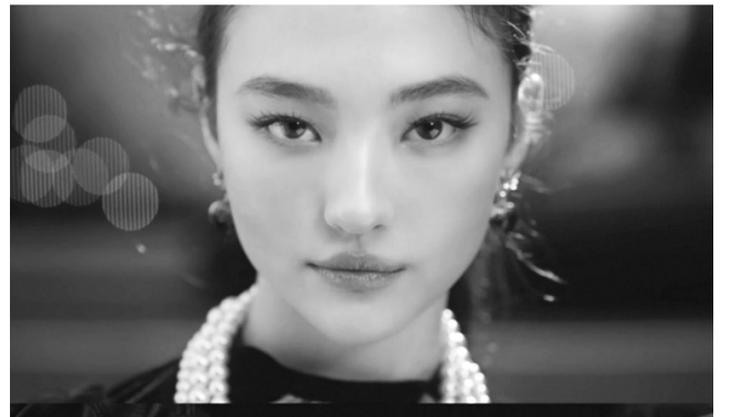
인사

광주전남경찰청

◇광주청 총경 전보·승진 △홍보담당관 총경 권현주 △경비과장 총경 최병은 △형사과장 총경 박제혁 △형사기동대장 총경 박동성 △안보수사과장 총경 박웅 △범죄예방대응과장 총경 차복영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총경 신완수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총경(승) 이광재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총경 박삼서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 총경 배승관 △북부서장 총경 김용관

◇전남청 총경전보·승진 △홍보담당관 총경 유도연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총경 박미영 △전남 치안정보과장

총경 허양선 △형사과장 총경(승) 황재현 △전남 안보수사과장 총경 이을신 △범죄예방대응과장 총경 문병훈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총경 권준석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총경 정상근 △교통과장 총경 오지석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총경 전병현 △광양서장 총경 송기주 △고흥서장 총경 공정원 △해남서장 총경 안형주 △장흥서장 총경(승) 박흥원 △보성서장 총경 고은경 △영광서장 총경(승) 박인신 △화순서장 총경 장승명 △장성서장 총경 배상진 △완도서장 총경 이성일 △진도서장 총경 임진영 △구례서장 총경 양광희 △신안서장 총경 이현준



테디 걸그룹 미야오, 첫번째 멤버 '엘라'... 9월 데뷔

더블랙레이블의 첫 걸그룹 '미야오(MEOVV)'의 멤버 엘라(16·사진)의 모습이 공개됐다.

22일 더블랙레이블은 공식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오는 9월 데뷔를 앞두고 '미야오'의 첫 번째 멤버로 엘라를 소개했다.

먼저 엘라의 정체를 유추할 수 있는 'EYES OF MEOVV' 티저가 공개돼 시선을 모았다. 'EYES OF MEOVV' 티저는 멤버의 눈에만 포커스를 두고 궁금증을 자극한 영상으로, MEOVV 멤버의 트레이일러가 오픈되기 앞서 힌트를 제공한다.

이후 업로드된 엘라의 공식 데뷔 트레이일러 영상은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

켰다. 영상 속 엘라는 인형 같은 비주얼과 시크한 무드, 신인답지 않은 강렬한 눈빛으로 MEOVV의 첫 번째 멤버로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뿐만 아니라 트레이일러 영상 말미에는 MEOVV의 데뷔 시기가 오는 9월로 확정됐다는 소식이 담겨 있어 글로벌 K팝 팬들의 기대감을 자극했다.

2008년 생인 엘라는 미국 출생으로 어린 시절부터 키즈 모델, 아역 배우로 활동했다. 특히 블랙핑크 제니를 닮은 외모로 '리틀 제니'라 불렸다. 일찌감치 더블랙레이블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하며 인지도를 쌓아 왔다.

미야오는 더블랙레이블의 수장 테디가 프로듀싱한다. 민현기 기자

'빅뱅'도 '대마초'도 잊고 싶은 탑... 팬 차단 '시끌'

그룹 '빅뱅' 출신 탑(최승현·사진)이 데뷔 18주년을 기념하는 팬의 SNS를 차단한 것으로 알려져 원성을 사고 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지난 19일 빅뱅 18주년을 맞아 탑의 SNS에 축하글을 올린 팬들의 계정을 차단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커뮤니티에는 '빅뱅 사진과 함께 탑을 태그 했다가 차단당했다', '빅뱅 팬들 계정 차단 중인 탑'이라며 인증샷이 쏟아졌다.

한 팬은 "본인 사진만 있는 18주년 축하 글에는 '고맙다'는 댓글을 달았다"며 비난했다. 다른 팬도 "굳이 찾아서 차단하는 게 더 힘들겠다. 그럼 빅뱅 시절 예명도 쓰지 말던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탑은 지난해 6월 빅뱅 탈퇴를 공식화한 바 있다.

탑은 당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기사를 캡처해 올린 뒤 빅뱅 탑이라고 쓴 부분에 'X' (엑스)를 표기하고 "난 이미

탈퇴한다고 얘기했다. 지난해부터 난 내 인생의 새 챕터를 마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탑이 지드래곤, 태양, 대성 등 빅뱅 멤버들의 SNS도 차단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탑은 포털사이트 프로필도 수정했는데, 데뷔일은 솔로 앨범을 발매한 2010년으로 바꾸고 수상 경력에서도 빅뱅 관련 이력을 지웠다. 다만 메인 이름의 경우 본명 최승현이 아닌 빅뱅 시절부터 사용해 온 'T.O.P'로 기재돼 있다.

한편, 탑은 지난 2016년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2월26일 공개하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 탑은 은퇴한 아이돌 역을 맡았다. 객지혜 기자